

## 전주 지부, 불우 시설에 사랑의 손길

### 3년간 50개 시설에 위문품 전달

전주지부(지부장 강대운)가 3년간 50여 불우 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의 손길을 펼쳐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주지부는 지난 1월 28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시와 완주군의 양로원 및 보육원, 영아원, 재활원 등 20개 불우 시설에 빵 114박스(7,980개)와 요쿠르트 2,375개를 전달하고 위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주지부는 95년 1월 13개 불우 시설에 빵 92박스(6,440개)와 요쿠르트 1,100개, 음료수 2박스를 전달했으며 96년 2월에도 17개 불우시설에 빵 79박스(5,530개)와 요쿠르트 1,810개를 전달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사랑의 손길을 펼쳐 왔다.

## 강릉, 신임 지부장에 이귀성 씨 선출

강릉지부는 지난 1월 30일 회산 결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 개선과 96년 사업 수치 결산 및 올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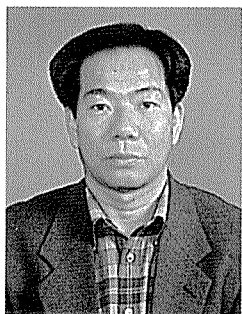
회원 및 관련 업계 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강릉지부는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지부장에 태극당의 이귀성씨를 부지부장에 최인동, 김병대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 이귀성 신임 지부장은 “앞으로 회원의 단결과 친목 강화, 기술 발전을 통해 더 발전된 지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새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이귀성 ▲부지부장 : 최인동, 김병대 ▲고문 : 장학문, 김상복 ▲총무 : 김양섭 ▲감사 : 유효중, 김명수 ▲이사 : 김근수, 우병래, 이병준, 정윤면, 최선홍, 김동각, 김복만, 당주영, 박혁동 ▲지역장 : 원순필, 박혁동(이사겸직), 허남복, 김명수(이사 겸직), 최성우, 심상진

## 김천, 새 지부장에 조병경 씨

김천시 지부는 지난 1월 24일 시내 황산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병경(황제당제과)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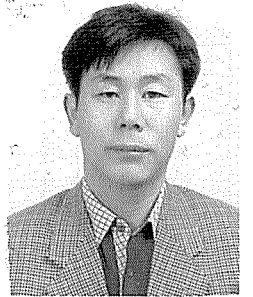


조병경 신임 김천지부장

2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신임 조병경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단합을 최우선으로 지역사업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진해, 새 지부장에 이광수씨

진해시 지부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광수(에펠 베이커리)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광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 단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수 신임 진해지부장

## 수원 비엔나, 지역 기술 발전에 일조

### 제빵시설 사용 개방, 수시 세미나 가능

동일 상호 사용 제과점 모임인 수원 비엔나 베이커리 회원들이 지역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비엔나는 1994년부터 불우 아동 보호 시설인 효행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효행원 내에 제빵 시설을 갖추고 원생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는 등 온정의 손길을 펼쳐 왔는데 최근 이 시설을 개방해 기술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비엔나의 시설 개방으로 기술인 모임인 수원 양과회가 서울 하인즈 기술 서비스팀의 지원 아래 2개월마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엔나는 앞으로 타 제과 기술인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 중국 식품업체 종사자 제과협회 방문

중국 북경시 식품 업체 종사자 연수단 일행이 지난 2월 대한제과협회를 방문했다.

한국 제과 시장 현황 파악차 방문한 중국 연수단 일원에게 대한제과협회는 협회 설립 목적과 활동 및 회원 보유 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현 국내 베이커리 시장 규모와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행 중에는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고려당의 점포 운영자 2명이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고려당 제품이 우수한 품질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

이 “한국을 제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